

전주성에서도 '대한독립만세'

2019 K리그 개막전에 나서는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백승권)이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전북현대에는 오는 3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지난해 FA컵 우승팀 대구F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2019 K리그 대장정에 돌입한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기 시작에 앞서 2005년 전주대사습놀이 대통령상과 2014년 KBS 국악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 판소리 명창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전북의 승리를 응원하는 에스코트 키즈는 특별 제작한 유니폼 티셔츠를 입고 입장한다.

내달 1일 전북현대 K리그 개막전서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행사 판소리 왕기석 명창의 애국가 열창 걸그룹 '마이달링' 승리 기원 공연

기념 티셔츠는 전북도 내 3·1 운동 사적지 22곳을 새겨 넣은 티셔츠로 100년 전 그 날의 정신을 담았다. 또 전북현대 서포터즈 MGB는 애국가 제창에 맞춰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프타임에는 지난해 K리그 개막전에서 전북의 승리를 응원한 걸그룹 아이돌 '마이달링'이 다시 한 번 승리 기원 공연을 펼친다. 특히 마이달링은 자신들의 공식 SNS에 전북현대 유니폼을 입고 신임 멤버를 소개하거나 활동 복귀를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전북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왔다. 경기장에 입장하는 팬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서울우유에서 협찬한 커피와 음료 2500여 개와 태극기가 그려진 스페셜 클래퍼 1만 개를 나눠준다. /뉴시스



전북스포츠과학센터는 26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전북스포츠과학센터, 스포츠과학서비스 지원

운영위 열고 올 사업계획 보고 핸드볼·태권도·양궁 등 밀착지원 종목·전문가 선정

개 종목이다. 또 올해 체력측정 및 피드백을 통해 선수 1,400여명을 지원하고, 스포츠 전문 지식을 위해 스포츠과학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스포츠과학센터 문동만 센터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수와 지도자 중심의 스포츠과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북지역 소속 엘리트 선수들의 버팀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관 2층에 자리잡은 전북스포츠과학센터는 전국 최초로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왔으며 2016년 국가 공모사업인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그간 국가대표급 선수들만 이용하던 첨단 측정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정문성 기자

전북스포츠과학센터가 올해에도 다양한 스포츠과학서비스를 지원한다. 26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전북스포츠과학센터는 이날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 사업계획 보고와 밀착지원 종목·전문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밀착지원 사업은 대상자(선수·팀)를 선정한 뒤 외부 전문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높이는 것으로 심리와 기술, 체력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밀착지원 종목은 핸드볼과 바이애슬론, 사격(권총), 태권도, 양궁 등 5

모라이스 전북현대 감독 "사네티가 떠오르네"

'2019 하나원큐 K리그1' 개막 미디어데에서 이동국 극찬

전북 현대의 조세 모라이스(포르투갈) 감독이 이동국에게 푹 빠졌다. 그라운드에서의 기량은 물론 인품, 성격,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이동국의 팬이 됐다. 마흔살이 된 이동국에게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임 후 열심히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이동국 만한 적임자가 없었다. '2019 하나원큐 K리그1' 개막 미디어데가 열린 26일 서울 흥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만난 모라이스 감독은 "생활도 긍정적으로 하고, 행동이나 자세도 바람직하다. 책임감 또한 상당히 강하다"고 이동국을 칭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항상 뛰든지 궁금해하고 새로운 것을 접하려고 시도한다. 본인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라고 극찬을 이어갔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하나원큐 K리그1 개막 미디어데 기자회견에서 전북현대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것을 다른 선수들이 알고 통편을 해달라는 의미다. 이동국처럼 모든 선수들이 관리 등을 잘 해 오랬동안 뛰었으면 한다." 통역 김민수씨는 "감독님이 동국이형을 염

청 좋아한다. 진짜 무척 좋아한다. 심지어 누가 봐도 동국이형의 페이스인데 다른 선수가 잘못됐다면 웃더라. 동국이형이 하는 일은 무조건 OK"라며 미소를 지었다. /뉴시스

K리그 새 시즌 명칭은 '하나원큐 K리그 2019'

2019시즌 프로축구의 새로운 명칭은 '하나원큐'로 결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6일 올 시즌 새롭게 변경된 대회 로고와 대회명을 공개했다. 대회 공식 명칭은 KEB 하나은행의 스마트뱅킹서비스인 '하나원큐'를 포함한다.

K리그는 하나원큐 K리그 2019, K리그2는 '하나원큐 K리그2 2019'로 정했다. 대회 로고도 전면 변경됐다. 2017시즌부터 후원을 시작한 KEB하나은행은 지난 시즌 약 639억6697만원의 노출 효과를 거뒀다. /뉴시스

태권도진흥재단

인권경영 위원회 발족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등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선다. 재단은 26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차 인권경영 위원회를 개최해 인권경영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내실 있는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현황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재단의 인권경영 위원으로는 정국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으로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해경 교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 박인철 소장(맥스브룩소시엄)이 포함되어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들은 인권 관련 지식과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및 협력업체 대표로 폭넓은 의견수렴 및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등 인권경영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맡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일본태권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은 일본태권도협회(협회장 가네하라 노보루, 이하 일본 협회)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체결했다. 재단 이사장 이상욱과 일본 협회 가네하라 노보루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태권도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 및 "일본협회 소속 태권도장들의 태권도원 방문"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0년 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 시 일본 내 불 조성을 위한 일본 협회 측의 특별한 노력을 기대하며, 일본 태권도 국가대표를 비롯한 선수들의 태권도원 방문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